

고흥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❶ 봉황산 어머니바위 설화 [골]

세밀한 생활사와 풍속사 혹은 세상의 어긋난 도리에 대한 풍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윤색과 와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이야기를 넣은 공간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의 입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 콘텐츠로서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본래의 설화를 들여다보는 까닭이다. 넘쳐나는 대신 그만큼 사라져가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설화의 가치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류몽인이 이곳에서 '어우야담'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스포츠동아는 2월23일부터 고흥의 설화를 소개해왔다. 고흥의 섬 소록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했다. 11개월 동안 연재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마무리한다. 고흥의 설화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이 적셨기를 바란다.

봉황새가 날아와 살았다는 봉황산 뻥뻥했던 소나무, 일제 수탈로 상처 산 정상에 중앙이 깊이 팬 여근바위 어머니의 투신, 가슴 아픈 사연 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봉황산의 항일애국지사충혼탑. 고흥(전남) | 김민성 기자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

봉황산엔 어머니가 산다...자식들의 그리움에 묻혀

봉황은 상상의 새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전설에서 탄생한 봉황은 때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을 상징하는 지명으로도 쓰인다. 고흥군에도 그 이름을 딴 봉황산이 있다. 군 소재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우뚝 솟은 산은 마치 일대 마을을 품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경사가 완만해 봉황산은 실제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 코스로 꼽힌다. 그만큼 친근한 곳이자 일상과 함께 하는 산이다.

●봉황 설화...봉황산이 명산이 된 이유

봉황산은 고흥읍 남계리 봉동마을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신상대(61) 마을 이장은 "옛날부터 고흥에 군자(君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봉황산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봉황이 날아와 살았다는 설화도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봉황은 몸에서 오색의 빛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세상에 바른 일이 많으면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런 봉황과 고흥이 어울려 맞물리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 봉동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알 길이 없다. 다만 신 이장은 "그만큼 고흥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황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 기운이 남달랐던 산은 과거 울창한 소나무 숲을 자랑했다. 바위에 많아 수려한 경지로 이름을 떨쳐왔다. 바위들은 여전하지만 소나무 숲은 예전만 못하다. 봉황산이 아픈 역사를 거쳐 왔기 때문이다. 봉황산을 빼곡하게 채웠던 소나무들은 1940년대 초반 송탄유를 만드는 데 쓰였다. 일제강점기 수탈이 극심하던 때다. 이제는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제가 남긴 상처다.

●정상에 우뚝 선 '어머니바위'

봉황산 정상 부근에는 커다란 바위가 서 있다. 높이가 족히 30미터에 이를 정



어머니바위는 멀리서 보면 언뜻 사람의 눈, 코, 입처럼 보여 바위의 이름이 붙여졌다. 예부터 주민 사람들은 바위를 바라보며 일상의 믿음을 가졌고, 마음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고흥(전남)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도로 엄청난 크기다. 두 개의 거대한 바위덩이가 한 데 붙어있는 듯한 모양도 이색적이다. 봉동마을에서 올라다보면 봉황산과 더불어 어머니바위가 시야를 꼭 채운다.

어머니바위에는 여러 이야기가 얹혀 내려오고 있다. 옛 이름은 여근바위다. 기이하게 생긴 바위의 모습 때문이다. 바위의 중앙이 깊이 팬 모습을 예부터 봐 온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바위를 마주보는 곳에 자리한 신호리에는 과거 마을 여인들의 가솔이 잤다고 한다. 이유를 찾던 사람들은 그 원인이 바위에 있다고 여겼다. 근처에 여자 공동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이유도 바위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 탓이다. 토속적인 믿음이 많았던 때였다. '액운'을 미

리 막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여근바위에서 어머니바위로 이름이 바뀐 데는 아픈 사연이 있다. 50여년 전 쯤 힘겹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남은 자식들은 그렇게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바위에 올랐다.

봉동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우영심(84) 할머니는 19살에 시집와서 60년 넘도록 어머니바위를 보고 살아왔다고 했다. 바위에 얹힌 설화도, 가슴 아픈 사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멀리서 봐도 바위 모습이 참 희한하단 말이야. 어찌 보면 눈, 코, 입처럼 보이다고도 어떤 때는 달리 보이고, 우리도 어머니바위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된 데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몸을 던졌겠어.

정말 마음이 아프제."

지금껏 봉황산과 어머니바위는 고흥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해왔다. 봉황산 아래 공터에는 너비가 8미터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의 바위가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바위틈으로 물도 흐른다. 옛 고흥 사람들은 이 물을 받아 마시면 돌아선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 고생하던 부부는 바위 물을 마신 뒤 아이를 갖기도 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는 고흥 사람들의 믿음이 봉황산을 타고 흐르고 있다.

고흥 | 이해리 기자 gof1024@donga.com

※고동안 '고흥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CLIP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방면->한천교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 우회전->한천교차로에서 도양·고흥·동강·오월리 방면 좌회전->동강교차로에서 동강·보성·대서 방면 우측방향->동강면 유도에 서 나로도·고흥 방면 우회전->고흥·별교·상남리 방면 우회전->계매교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 좌회전->운대교차로에서 두원·고흥남방조제 방면 우측 방향->지동교차로에서 신송리 방면 좌회전->도양·고흥읍사무소 방면 좌회전->봉황산

TIP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인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임진왜란부터 6·25전쟁까지...고흥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

■봉황산 위령탑 이야기

고흥은 역사와 함께 해온 지역이다. 한반도 최남단, 남해를 낀 지리적 위치 탓에 500여년 전 임진왜란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고 이후로도 아픈 역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수탈, 6·25전쟁의 아픔도 고흥을 비껴가지 않았다.

봉황산에는 고흥이 지나온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호국문화공원이 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 이어진 정유재란에 맞서 싸운 고장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항일애국지사의 추모탑이 나란히 서 있다. 6·25전쟁에 참전해 고흥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탑도 있다.

반드시 봉황산 주변이 아니더라도 고흥군 일대에서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걸 장군의 위패를 둔 안동사도 그 중 하나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걸 장군은 해전 경험이 없던 이순신 장군에 해전 전략을 전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안동사는 봉황산에서 출발해 자동

차로 15분이면 닿는 위치에 있다. 봉황산이 고흥을 상징하는 산으로 꼽히는 이유는 산 초입에 있는 남취루의 영향이기도 하다. 1667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취루는 옛 판야의 관문이다. 큰 북을 매달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를 알리는 역할도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불 타 소실됐다가 복원해 세웠다. 고흥 | 이해리 기자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유지비만으로 기계값이?!

WINIA

초절전 1등급에너지효율 인버터 냉·난방기

냉방+난방 한번에 해결!

전속모델 김유정

교회,식당,공장,업소 무료방문설계

여기서 구매하셔야 하는 이유!!

- ▶ 무보증, 무담보, 장기36개월할부
- ▶ 초기비용 '0' 최장 36개월 할부
- ▶ 보유카드에 따라 무이자혜택
- ▶ 업소,사무실,공장 등 다양한 모델보유
- ▶ 전문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신속설치
- ▶ 믿을수 있는 위니아 본사직판

-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인버터
- ☑ 본사 전국 유통망의 확실한 A/S
- ☑ 무더위·강추위에도 탁월한 냉·난방능력
- ☑ 저소음 컴프레서 장착으로 조용조용
- ☑ 제습기능으로 습기찬날에도 뽕뽕송송

딤채의 기술력 그대로!

부담없는 초절전시스템!

위니아 초절전 냉·난방기

• 소형~대형평형, 모든 업소와 사무실에서 탁월한 효과
• 멀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모든 사양보유
• 어떠한 건축,실내구조에도 설치가능

강력
냉방

강력
난방

강력
제습

문의 ☎ 1577-9486 (전국어디서나 무료)